尹스승 송상현 “최근 위기는 ‘쓴 약’...더 겸손하면 전화위복 될 것” [송의달 LIVE]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지도교수인 송상현 명예교수 [송의달이 만난 사람]

송의달 에디터

업데이트 2023.04.11. 10:22

심당(心堂) 송상현(宋相現·81)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법학자이다. 미국 뉴욕대가 1994년 2월 ‘세계 최고 저명 법학자 25명’ 중 한 명으로 송 교수를 선정한 뒤 그를 250만달러 기금으로 운영하는 첫 번째 석좌(碩座)교수로 뽑은 게 한 증좌(證左)이다. 국내외 언론은 당시 “송 교수가 세계 법학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격”이라고 평가했다.

고하 송진우 선생의 친손자인 송상현 교수는 전주 북중학교와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자랑스런 경기인상'(2003년),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2006년),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2018년) 등을 받았다./송상현

그로부터 9년 후인 2003년 그는 또다시 낭보(朗報)를 전해왔다. 전쟁·반(反)인도주의 범죄 관련 심판(審判)을 하는 상설 국제사법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초대 재판관에 출마해 당선된 것이다. 2009년 한국인은 물론 아시아인 최초로 ICC 2대 소장에 선임된 송 교수는 2012년 연임돼 2015년까지 6년간 재임했다.

◇세계적 법학자...아시아인 최초 국제 사법 首長

1980~90년대 서울대 교수들의 관직·정치 참여 풍조와 절연한 채 학자로서 독보적(獨步的)인 경지를 걸어온 점도 돋보인다. 송 교수는 대신 일본 법학에 사실상 중독됐던 한국 법학의 독립과 체계화, 국제화에 주력했다. 1983년 1200쪽 분량의 영문서적 <Introduction to the Law and Legal System of Korea(한국 법제도 입문)>과 <Korean Law in the Global Economy>를 발간한 것은 그 노력의 일부분이다.

한국인, 오늘의 초상

뉴욕대 선정 「세계 최고 저명 법학자 25명」중 1위

宋相現 서울대 사법학과 교수

“우리 法 이해시키는 게 일회성 로비보다 효과적”

宋義達 (주간부기자)

지난 2월12일 저녁 8시쯤 미국 뉴욕시 뉴욕대 캠퍼스 한 켠에 자리잡고 있는 스노우다이닝룸.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의 80여평 만찬장에는 제임스 씩스본 법대 학장, 이 학교 부총장, 뉴욕시관·검사, 변호사 등 내외빈 1백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모임의 목적은 이 학교가 올해 처음 제정한 「세계 최고 저명 법학자 25명」(The 25 Most Distinguished Professors of Law in the World) 가운데 첫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

이 행사는 하이테크 전자부품 생산업체인 랜너트社 회장 랜너트氏가 이 대학에 1백50만달러를 기증해 설립한 「잉게 랜너트 석좌교수」직을 뽑는 자리이기도 했다. 총 2백50만달러(95년에 1백만달러 추가) 규모로 운영되는 이 석좌교수직은 선정된 학자에게 아무 조건없이 자신이 원하는 법학 연구를 평생토록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 교수라면 누구나 자신의 학문적 업적을 걸고 달려드는 자리였다.

이날의 영광은 키 1백80cm, 몸무게 73kg의 투리투리한 체구의 동양인 몫이었다. 주인공은 한국의 宋相現교수(53). 지난 72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그가 한국인으로선 드물게 외국 유명대학이 마련한 석좌교수직에 오른 것이다. 한국학계에서는 물보지나 다름없었던 세계 「학문 올림픽」 그것도 법학 올림픽에서 그는 당당히 「금메달」을 따낸 셈이다. 이번 선정은 무엇보다 전 세계 30여개국 3천여명의 저명 법학 교수들 가운데 선두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법학계와 국내 학계 전체에 일대 경사(慶事)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학교측이 밝힌 구체적인 선정 경위를 보면 宋교수 선정에는 몇 배 이상의 희미가 담겨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제닝스국제사법재판소(ICJ)소장, 갈리 UN사무총장, 드워킨 옥스포드대 법학교수 같은 세계적법학 권위자 7명이 후보자들의 학문적 업적, 해당국의 법학 수준 등 심사를 맡아 최대한 객관성을 갖췄다. 또 宋교수에 이어 2,3번으로 뽑힌 학자들도 일본 교토대 다나구치(60·谷口·민사소송)교수, 대만 국학연구소 張偉人교수(중국 법제사), 이스라엘 베나임 前대법원장 등 해당 분야에 관한 한 세계적 권위자들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미국에서 귀국한 宋교수는 「같은 아시아권 대국인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는 학문 수준이 미달이라는 이유로 한 명도 선정되지 않았는 데 비해 한국인으로서 본인이 영예를 안은 것은 한국 법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굳이 본인이 선정된 이유를 따져 본다면 그동안 한국법의 국제화 활동 노력이 반영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리포트誌 같은 미국 현지언론에게로부터 석좌교수 선정과 관련, 집중취재를 받기도 했다는 宋교수는 한국법의 국제화에 관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그의 소신은 한국법의 미국 진출을 강조하는 데서 특히 두드러진다.

「미국은 80만명을 넘는 변호사가 있고 매년 수만명이 새로 변호사가 되는 「法治(Rule of Law)」의 나라입니다. 정치 외교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들 법률가들이지요. 따라서 이 나라의 여론 주도계층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면 일회적인 로비스트나 막연한 한국학 지원보다는 유능한 법률가 양성과 지원이 긴요합니다.」

예컨대 미국내 일류대학 법대에 한국법 강좌를 개설해 교육시키고 관리한다면 한국법을 공부한 이들 우수한 학생들이 미국 사회 중심부에 진출, 자연스레 親한국그룹을 형성해 상호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한결 부드러워진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이 미국과 숱한 무역마찰을 벌이면서도 통상제재를 거의 받지 않고 있는 것은 70년 하버드大에 미쓰비시그룹의 일본법 석좌교수(1백만달러)제를 시작으로 컬럼비아, 조지타운대 같은 명문대에 10여개정도 법학 석좌제를 운영, 親일본계 법률가를 양성하는 우회전략이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활적인 이해가 걸려 있는 미국을 공략하거나 우리의 생존책을 적극 도모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류법대에 한국법 관련 석좌교수제를 마련하는 식의 과감한 「국제화」 추진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宋교수를 「말」만 앞세우는 평범한 학자쯤으로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그는 지난 80년 1천2백쪽 분량의 「한국법제도입문(Introduction to the law & legal system of Korea)」이란 책을 냈다. 78년 미국 하버드법대 방문 연구원자격으로 있을 때 당시 영어로 된 한국법 교재가 전무한 데 충격을 받아 귀국후 4년간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이 책은 현재까지 국내외를 통틀어 유일한 한국법 소개 영문 서적이다.

古下의 손자, 외국 4개大에서 강의

이뿐이 아니다. 그는 지난 91년 한국 교수로는 처음 하버드대 법대에서 한 학기간 한국법을 정식 강의했으며, 그 이후 홉수해마다 같은 대학에서 강의를 맡고 있다. 90년부터 하수 해에는 호주 멜버른대학 법대에서 한국법 강좌를 열고 있으며 올들어는 뉴욕대와 뉴질랜드 웰링턴대학으로 개설 강좌를 늘렸다. 한국과 학기제가 다른 점에 착안, 국내의 여름 또는 겨울방학 기간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학교 강의에는 절대 지장이 없도록 신경쓰고 있다고 한다.

「뉴욕대에서의 60명을 비롯해 하버드대, 멜버른대에서 수강생이 25~70명에 이르는 등 의외로 강좌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마도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로서 한국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는 데서 오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宋교수는 「타운대, 위싱턴 없다」고 했다. 년), 파키스탄(8 튜터 소프트웨어 특허도입법을 기도 했다. 한

74 주간조선 94.3.31

송상현 교수는 1994년 2월 12일 미국 뉴욕대의 '세계 최고 저명 법학자 25명(The 25 Most Distinguished Professors of Law in the World') 가운데 첫 석좌교수로 선정됐다. 사진은 당시 소식을 전한 <주간조선> 1994년 3월 31일자 기사/송의달 기자

송상현 교수의 주요 저서들. 그는 1976년 '민사소송법개론(上)'을 시작으로 2020년 회고록까지 공저(共著)를 포함해 14권의 책을 냈다.

송 교수는 1978년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방문교수 시절, 한국법 영어 교재가 전무(全無)한 것을 깨닫고 귀국후 4년 동안 준비해 그의 첫 영문서적을 냈다. ICC 재판관과 재판소장 취임도 세계적 기준에서 불모지(不毛地)에 가깝던 한국 법학의 일류화를 향한 개척자적 몸부림이다.

그는 50년 넘게 노인·고아·백혈병 소아암 환자 등을 조용히 돕는 '사랑의 실천자'이기도 하다. 기자가 이달 6일 인터뷰차 찾아간 곳도 송 교수가 명예회장으로 있는 서울 마포의 유니세프(UNICEF)한국위원회 사무실이었다. 30여년 전 한국위원회 창립부터 유니세프 활동에 뛰어든 그는 2012년부터 9년간 무보수(無報酬)로 한국위원회 회장을 맡았다.

-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 매일 이곳에 나오는가?

"유니세프사무실은 일이 있을 때 가끔 나오고 평소엔 집과 개인 사무실을 오간다. 장인(丈人)인 김상협 고려대 총장께서 70세에 모든 직책을 내려놓는 것을 보고, 나도 따라하려 했으나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이 되는 바람에 10년 늦은 80세에 모든 자리를 그만뒀다. 유럽 비정부기구(NGO)와 독일 국제형사법연구기관 같은 곳에만 일부 관여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서강로에 있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송상현 교수는 1993년부터 유니세프(UNICEF)에 몸 담고 있다. 1994년 출범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매년 모금총액에서 세계 3위이다. 정기후원자 수, 개인후원자의 평균기부액, 본부에 송금하는 절대액, 등에선 세계 1위이다./송의달 기자

◇"매일 오전 5시 기상...지금도 영어로 인터넷 화상회의"

- 건강은 어떤가?

"말하고, 걷고, 움직이는데 문제가 없다. 겨울에는 집 안에서 매일 3000보씩 걸었다. 특별한 운동을 하지는 않고 지금도 매일 밤 11~12시에 취침해 오전 5시 경에 일어난다. 어제는 인터넷 줌(zoom)으로 영어 화상(畫像) 국제회의를 밤 11시부터 12시30분까지 했다."

송 교수는 3시간에 걸친 인터뷰 내내 본인이 다섯 살 때인 1945년 12월 30일 밤 벌어진 할아버지인 송진우(宋鎭禹) 선생의 암살 사건을 포함해 대학 생활과 교수 시절 제자들과의 추억까지 모든 일을 명징(明澄)하게 기억했다.

송상현 교수의 할아버지인 고하(古下) 송진우(1887~1945) 선생은 일제강점기 동아일보사 사장과 해방 후 한국민주당 수석총무 등을 지냈다. 그는 1945년 12월 30일 밤 저격범의 총탄을 맞고 사망했다. 당시 다섯 살이었던 송 교수는 "집 아래채에서 먼저 잠 들어 버리는 바람에 참사를 면했다"고 말했다./인터넷 캡처

-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나?

“조금 외롭지만 나 자신에게 엄격한 원칙을 지켜왔다. 할아버지의 참사 이후 가족 모두 ‘절대 정치는 않는다’고 맹세했다. 아버지는 담임 선생이던 장면 총리로부터 상공부 장관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했다. 나도 총리, 장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10여차례 제의를 모두 물리쳤다. 5공화국 국무총리를 지낸 장인을 통해 총리의 실상을 너무 자세히 알아 단호할 수 있었다.”

- 삶의 지표로 삼고 있는 원칙이나 가치가 있다면?

“아마도 겸손하고, 자기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자신의 분야 또는 쟁점에서 세계 최고(最高)가 되는 것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온정(溫情)의 손길을 뻗치는 것 정도이다. 한 번 목표를 세

우면 그 분야에서 1등이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남을 도울 때는 쓰고 남은 돈을 한 두푼 던져 준다는 자세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30세부터 지금까지 노인, 어린이, 고아 등 도와

- 평생 봉사 활동을 하는 특별한 계기가 있나?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1971년, 이웃 주민으로부터 ‘학벌, 집안 배경, 직업 등이 좋은 당신 같은 사람이 힘든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권고를 듣고 결심했다. 주말마다 집에서 멀지 않은 서울 돈암동 산동네 노인들을 찾아 목욕과 이발을 도와드리고 병원 등에도 모셨다. 학교는 물론 가족에도 얘기 않고 신분도 숨겼지만 3년쯤 지나니 소문이 나 ‘국회의원 나가려 쇼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때 많은 걸 깨달았다.”

송 교수는 이어 말했다.

“어린이는 유권자(有權者)가 아니니 오해를 받지 않을 듯 해 그때부터 어린이를 돕기 시작했다. 보육원에서 18세가 돼 강제퇴소되는 청소년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돌봐주는 ‘중간의 집’에서 봉사했고, 월남전 당시 한국 군인과 베트남 여성 사이에서 난 라이따이한을 위해 베트남에 직업 훈련소를 세워 자동차·TV수리 같은 기술을 가르치는 사업도 같이 했다.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을 법인으로 만들어 10년 넘게 이사장을 맡았다.”

송상현 교수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장을 만나 전국 대학병원 주변에 '쉼터' 건물 등을 지었다. 사진은 백혈병어린이재단의 캠페인 광고문/인터넷 캡처

그는 “‘백혈병 어린이재단’의 경우 내가 부여받은 소명(召命)이라 여기고 했다. 전국 대학병원 소아과 의사들과 협조하면서 각계 지원과 기부금 등으로 소아암 환우(患友)와 가족들의 ‘쉼터’ 건물을

전국 10여개 대학병원 앞에 확보한 게 보람"이라고 말했다.

- 혹시 종교나 가족들 영향 때문인가?

"종교와는 관계 없다. 나는 30년 넘게 유니세프 활동을 하는 '유니세프 맨'이고, 아내는 30년간 한국적십자사에 몸담은 '적십자인'이다. 선친(先親)께서도 기부를 자주 하셨는데 외부에 절대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셨다. 장인은 적십자 총재를 지냈고, 장모님은 60년간 적십자에서 봉사했다."

2015년 4월 20일 서울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남재 김상협(南齋 金相浹·1920~1995) 선생의 20주기 추도행사 모습. 그는 고려대 총장과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을 지냈다. 송상현 교수는 "초·중·고교 시절 훗날 장인이 되는 김상협 선생 댁에 매년 세배를 갔다. 남재 선생께서 '한국은 해양으로 진출해야 한다. 법학을 공부해 바다에 관한 법의 체계를 세워보라'고 조언해주셨다. 그 영향으로 해상법과 해양국제법을 전공하게 됐다"고 말했다./고려대

-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도 상당할 것 같다.

"서울대에는 사비(私費) 7억원을 기부했다. 이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모아준 3억원까지 합하면 10억원을 냈다.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으나 유니세프와 백혈병재단 등에도 모두 수억원 정도는 냈을 것 같다. 나는 '돈은 물[水]'이라고 생각한다. 돈 많이 벌 요량이었으면 교수 아닌 다른 직업을 택했을 것이다."

◇"밤낮 휴일 없이 일한 ICC 12년은 보람있는 봉사 기회"

- 아시아인 최초로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됐는데.

“정년 퇴임을 앞두고 앞날을 설계하던 중 충분한 자격 요건과 영어 실력을 갖춘 적임자를 찾기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우연한 기회에 출마했다가 당선됐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보낸 12년이 가장 영예롭고 보람있는 인생의 마지막 봉사의 기회였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 본부 건물. 2002년 창설된 ICC는 전쟁범죄, 제노사이드(소수집단 말살), 반인도적 범죄 등을 다룬다. ICC는 2023년 3월 1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AP연합뉴스

송 교수는 2020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정의(正義)를 통한 인류의 평화와 안전의 확보에 작으나마 기여했다고 자평할 수 있겠다. 참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밤낮과 휴일도 없이 12년을 뛰었다. 5대양6대주를 누비면서 100명 이상의 국가원수들과 각종 정상회담을 했다”고 밝혔다.

그의 이어지는 말이다.

“으리으리한 관사(官舍)에 고액 연봉, 국가원수급 의전 같은 특혜(特惠)를 누렸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다. 2002년 창립후 회원국들의 부담금으로 예산을 세워 움직이는 ICC는 20년 넘게 연봉 체계가 그대로이다. 관사는 없어서 은행 융자를 받아 아파트를 사서 생활했다. 금전적인 측면에선 국내 보다 훨씬 손해였다.”

송 교수는 “ICC 근무시절 아찔한 순간도 경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외국 방문 중 밀림 속에서 반군들이 포위해 무차별 폭격을 가해오는 등 죽을뻔한 고비만 3번 정도 있었다. 아프리카 오지를 방문했다가 생각 못한 악조건에 직면했고, 리비아의 카다피 아들 재판을 위해 ICC에서 호주 여성을 포함한 4인의 변호인단을 보냈다가 전부 투옥돼 내가 목숨 걸고 리비아를 직접 찾아가 모두 구출해 헤이그로 데려온 일도 있었다.”

송상현 ICC 소장(가운데 흰색 양복 차림)이 2009년 12월 아프리카 부니아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현장사무소에서 경호팀과 함께 서 있다./송상현

-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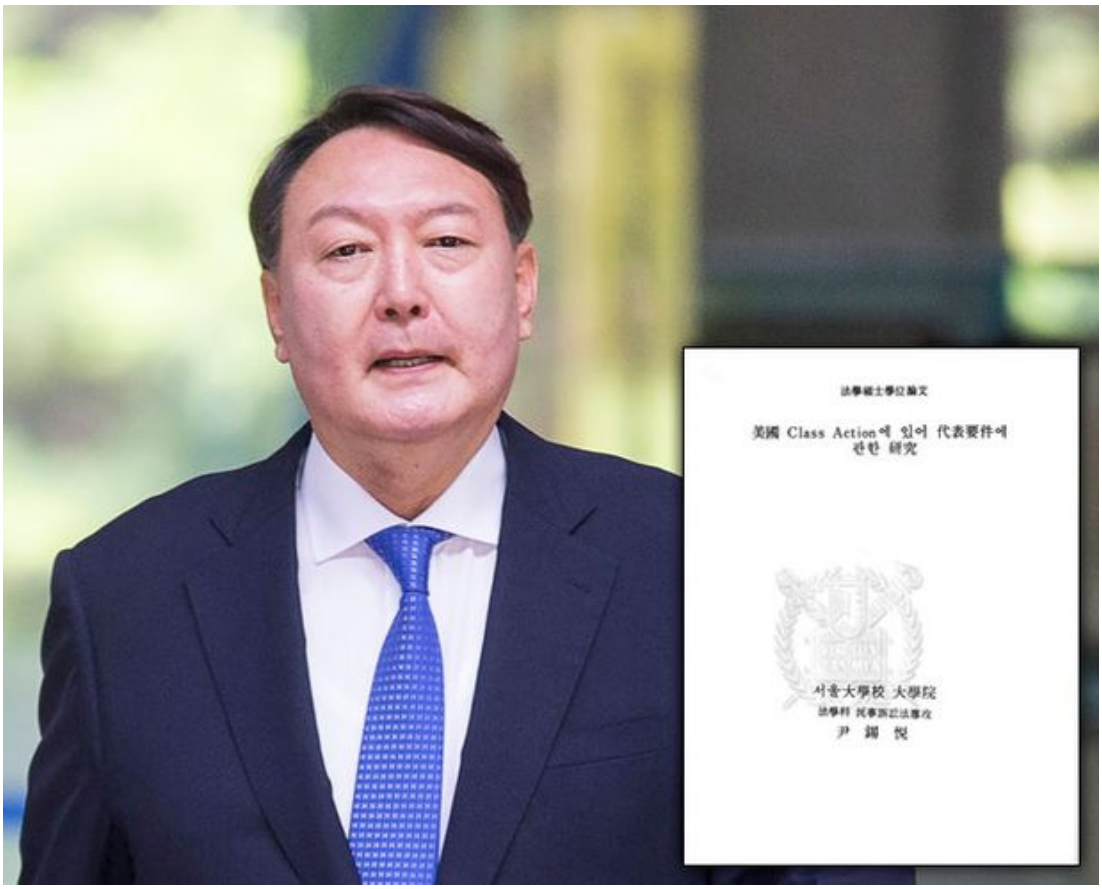
“그렇다. 국제기구나 국제 단체의 장(長)을 맡거나 거기서 일한다는 것은 유명해지거나 돈을 많이 버는 일과 무관하다. 인류 사회를 위해 손톱 만큼이라도 봉사하고, 인류를 조금이라도 좋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명성과 부귀를 구하려 하면, 일도 안 되고 자신도 불행해진다.”

◇“진지한 尹 대통령, 아주 좋은 석사논문 썼다”

- 35년동안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제자들을 키웠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기억하나?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서울대 법대생들과 달리, 윤 대통령은 인문사회 분야를 열심히 파고 들어 그 분야 소양이 탄탄했다. 국내외 책들을 읽은 뒤 정리해 머리에 넣는 재주가 비상했다. 그는 또 진지한

학생이었다. 대학원 지도교수였던 나는 그가 석사학위 논문을 대충 쓸 걸로 생각했는데, 윤 대통령은 '집단소송(Class Action)의 대표성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택해 '대표요건(要件)'에 집중해 법리적, 경제학적 측면에서 아주 좋은 논문을 썼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가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서 쓴 석사학위 논문. 제목은 '미국 집단소송(Class Action)에 있어 대표요건에 관한 연구'이다./월간조선

송 교수는 "윤 대통령이 구수(九修)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은 머리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관심사가 다양하고 보스 기질이 있어 동료와 후배들을 챙기느라 그랬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의 집권 후 지난 1년을 평가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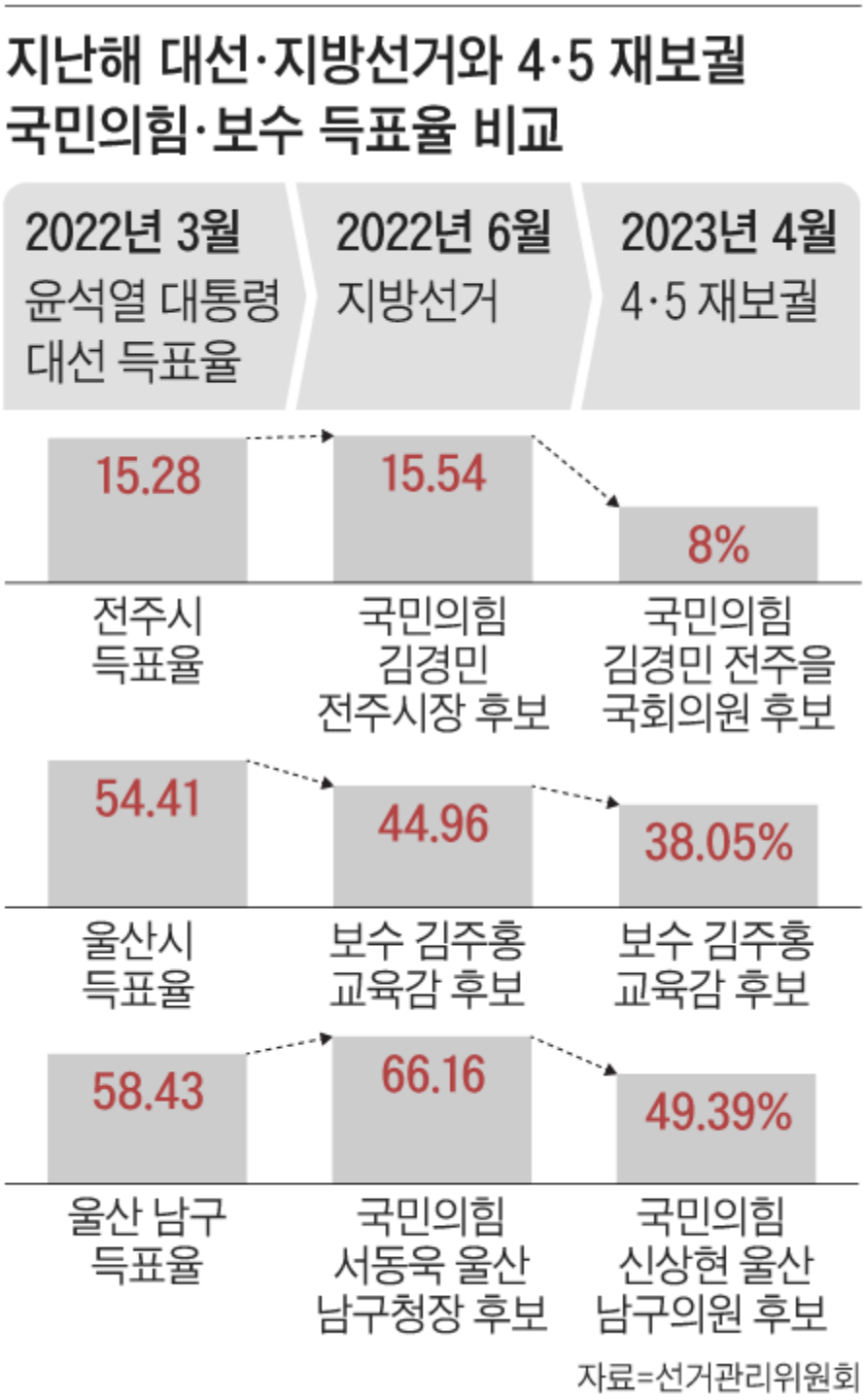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와 소중함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신봉하는 대통령으로서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본다. 윤 대통령은 최고의 학교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대학에서 교편(敎鞭)을 잡은 부모님 가정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 한 마음 돼 분발해야"

- 검사(檢事)·서울대 법대 출신 등으로 윤 정부의 인재 풀이 너무 좁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윤 정부는 대한민국 건국 80여년 만에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일 없는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능력주의), 즉 뛰어난 인재들로 정부를 운영하는 시도와 실험을 하고 있다.

아무리 욕 먹어도 4년 후 '우리가 이만큼 해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면 성공이다.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가 한 마음이 돼 좀 더 분발하면 가능할 것이다."



2022년 대통령 선거·지방선거와 2023년 4·5 재보궐 국민의힘·보수 득표율 비교/조선일보DB

- 최근 국회의원 등 보궐 선거 패배로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보궐 선거에서 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오히려 자만하고 방만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돼 잘 된 측면도 있다고 본다. 쓴 약(藥)으로 받아들이면 전화위복(轉禍爲福), '보약'이 될 수 있다. 그럴려

면 무엇보다 더욱더 겸손(謙遜)해져야 한다.”

- 내년 4월 총선이 딱 1년 남았는데.

“윤 정부의 정책에 국민들이 표를 줄 건지, 견제 심리로 의석을 적게 줄 건지 아직 판단하기 이른 것 같다. 표(票) 떨어질 언행을 조심하고 심기일전해 노력한다면,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모질게 하진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감성(感性)을 헤아리며 마음을 얻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입국·이민 정책과 관련한 협력 체계를 갖추기 위한 2023년 3월 7일 유럽 출장을 가고 있다. 한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으로 향하며 손에 든 빨간색 책은 2500여 년 전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이다./연합뉴스

- 제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계 차출설이 나오는데.

“한동훈 장관은 부부(夫婦)가 서울대 법대 제자로 내가 주례를 봤다. 그의 정계 등판설은 현재 당이나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활동이나 업적을 못 쌓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치인들이 더 책임감 갖고 노력해 주길 바란다.”

◇“야당의 法治 훼손은 상식 벗어나...국민 공감 못 얻을 것”

- 야당이 다수당을 무기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같은 법치(法治) 훼손을 꾀하고 있다.

“너무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이다. 야당이 궁지에 몰렸으니 하는 짓들 아닌가. 80여년 전부터 해오던 제도를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하루아침에 바꾸려한들 얼마나 호응하겠나. 공감을 못 얻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눈이 굉장히 예민해 (법치 훼손에) 날카롭게 반응할 것이다.”

2023년 한국의 사회적 자본 지수

	2013년 점수	2023년 점수	세계 순위	동아시아 및 태평양 순위
사회적 자본 지수	48.3	**51.6**	**107위**	**15위**
개인 및 가족 관계	61.8	64.9	103	13
소셜 네트워크	41.1	41.7	162	17
대인 신뢰	50.3	47.2	39	8
시민 사회 참여	43.8	44.5	72	13
사회적 관용	44.5	59.6	53	10

자료=영국 싱크탱크 레가툼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은 2023년 3월 발표한 '2023 번영지수'에서 한국의 사회적 자본 지수를 165개국 중 107위로 평가했다. 특히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155위라고 레가툼은 밝혔다.

- 회고록에서 “ICC 재판관·소장으로 12년간 뛰면서 단 하루도 잊은 적 없고 나에게 큰 힘과 에너지의 원천이 된 것은 나의 자랑스러운 제자들의 존재이다”라고 적었는데.

“전혀 과장이 아니다. 훌륭하고 똑똑한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모범이 되기 위해 나도 더 열심히 하고 조심하는 삶을 살았다. 내가 이상한 곳으로 가지 않은 것은 제자들 덕택이다.”

송상현 교수의 12년 만의 영구귀국을 맞아 2015년 봄 서울대 법대 제자, 후학들이 마련한 귀국 축하 및 기념 문집 발간 모임 사진/송상현

송상현 교수가 ICC 근무를 마치고 2015년 봄 12년 만에 영구귀국하자, 서울대 법대 제자들이 각자 쓴 글을 모아 출간한 문집./인터넷 캡처

송 교수의 서울대 법대 제자들은 30여 년간 스승의 날, 연말, 설날 등에 정기 모임을 가져왔다. '코로나19'로 송 교수의 팔순(八旬) 회고록 출판기념회가 무산되자, 제자들은 2021년 11월 메타버스 공간에서 '송상현 타운'을 만들어 비대면 모임을 가졌다. 1990년대 정초에 송 교수 자택에는 500여명의 후학·제자들이 몰려와 신년 인사를 나누었다.

◇"한국 엘리트들, 겸손·개방성·국제 감각 키워야"

- '리더들의 멘토'로 불리는데, 우리나라 엘리트들에게 바라는 바라면?

"하버드대를 비롯해 12개 세계 일류 법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봤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제일 탁월하고 뛰어나더라.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인재들이다. 다만 좀더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폐쇄성을 깨고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화 감각과 능력이 매우 부족한데 이를 보완하고 키웠으면 한다."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2014년 10월 미국 뉴욕 UN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송상현

- 1960년대 이후 대한민국 발전을 지켜봤는데, 아직 아쉬운 부분을 꼽는다면?

“누가 뭐라 해도 한국은 지금 선진국이다. 그런데 아직도 유학가는 졸업생들이나 정치인들을 보면 선진국에 가서 뭔가 일방적으로 배우겠다는 생각만 한다. 이래선 안된다. 이제는 후진국 멘탈리티

(mentality·사고방식)를 버리고 선진국 인재들과 대등하게 주고받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려면 우리가 더 준비하고 더 노력해야 한다.”

그는 “상당수 한국인은 어른처럼 커진 몸에 어린이 같은 의식(意識)을 갖고 있다. 정치인, 학자, 직장인 모두 교양있는 세계 시민이 되도록 힘써 공부하고 생각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평생 새벽 5시 기상...부지런히 많은 일 처리”

- 29년 전 인터뷰에서 매일 새벽 5시 전에 기상한다고 했는데.

“평생 그렇다. 대학 때는 오전 4시 통행금지 해제 사이렌이 울릴 때, 아침밥을 먹고 돈암동 집을 떠나 30분간 걸어 동숭동 서울대에 도착했다. 정문 수위를 깨워 매일 아침 도서관에 1등으로 입실했다. 조용하고 맑은 상태에서 아침 3~4시간 공부하고 대학 강의를 빼먹지 않고 충실히 들었더니 대학 재학 중 고등고시 행정과와 사법과에 합격할 수 있었다.”

貌面의 苦刻

最高齡金昶植군

三十九세의 「젊은 고령자」로 합격한 김(金昶植)씨는 독학속에서 오늘의 영예를 얻었다 고향 전남(全南康津郡鵲川面)에서 국민학교를 나온뒤 五회보시(普試)에합격—지금은 내각사무처에근무하는 행정사무관이다 四남一녀의 아버지이기도한 「김」씨는 삼청동에 十만원짜리 전세를 들면서 쪼들리고 바쁜생활속에서도 틈틈이 공부한것뿐이라는것이다

宋鎭禹씨의孫子도

獨學20年 普試거치기에最高齡

最年少者 宋相現군

◇최고득점자權군

◇최고령자金씨

◇최연소자宋군

◇최연

最高點 權丙鉉군

제十四회 고등고시 행정과합격자 三十八명중七〇·一四점으로 수석의영예를차지한 약관二十三세의 권(權丙鉉)군은경남하동군(河東郡振橋面振橋里)출신이다

最年少

송(宋相
고하(古
禹)씨의손
」전무송(
의외아들로
중과「경기
재「서울법
다 엄격하

- 교수가 된 뒤에도 새벽 기상을 계속하는 이유라면?

“해야할 일이 너무 많아서다. 한 예로 법과대학의 경우 예전에 영어를 구사하는 교수가 없어서 강의·학생 지도 외에 국제교류 관련 일은 내가 도맡았다. 각종 학회를 만들어 내가 이끄는 단체가 많았다. 맡은 일을 제대로 하려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 부지런해야 했다.”

- 우리나라의 앞날을 전망한다면?

“한국은 국운(國運)이 있는 나라이다. 앞뒤가 절벽 같이 꽉 막혔을 때마다 살 길이 열렸다. 숱한 위기를 슬기롭게 넘겨와 앞날도 대체로 낙관하지만 급격한 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FINANCIAL TIMES

LUNCH WITH THE FT

March 13, 2015 1:13 pm

Lunch with the FT: Sang-Hyun Song

Lionel Barber

Over prawns in The Hague, the outgoing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alks about growing up in Korea, negotiating in Libya and the difficulties of bringing war crimes to trial

On a sunny day, the view from the Penthouse restaurant on the 42nd floor of The Hague Tower stretches to the North Sea. But this is late February in the Low Countries. The tower stands enveloped in mist, a fitting metaphor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hose South Korean president, Sang-Hyun Song, is joining me for lunch.

Established in 2002, after the genocide in Rwanda and ethnic cleansing in former Yugoslavia, the ICC has lofty ambitions: to end impunity by holding countries and their leaders accountable under international law for heinous crimes. The reality is more prosaic: the court is a young, fragile institution in a Hobbesian world where might usually trumps right.

There are many questions I wish to explore with Song. How can illiterate, traumatised child soldiers from Africa be expected to testify against their former commanders in a foreign court thousands of miles from home? Should we take the ICC seriously when China, Russia and the US refuse to sign up? And how about the ICC's record over the past 13 years, which shows the people put on trial (and the two convictions) have all been black men?

Song, 73, is said to be super-smart but bland and sometimes ineffectual. After a long career as a law professor in Seoul, he became one of the ICC's first judges and was appointed president in 2009. Those who know him say his weakness derives from his office — the ICC has a budget of more than €100m but no powers of arrest, no police force, no intelligence gathering and must rely on the goodwill of member states; in fact, they say, Song is courageous and generous, a philanthropist who co-founded a legal aid centre for women in South Korea.

The president arrives on time at 12.30pm, a slender man with straight black hair streaked with grey. He is wearing a dark suit with a pale blue shirt and a diamond-patterned pink tie. He is smiling, though still suffering from a pre-Christmas virus. "Too many speeches," he explains hoarsely.

Our table is in a discreet corner of the restaurant. The decor is modern but unfussy. A tall waiter arrives with a jug of water. "Good evening . . . I'm sorry, good afternoon," he begins, inauspiciously. "We have two lunch menus, one basic, one à la carte."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2015년 3월 14일자에 실린 송상현 교수 전면 인터뷰 기사. 인터뷰를 한 라이오넬 바버(Lionel Barber) FT 대기자는 송 교수에게 '외교관 판매원(diplomat salesman)', '국제정의의 전도사(international justice evangelist)' 등의 별명을 붙여 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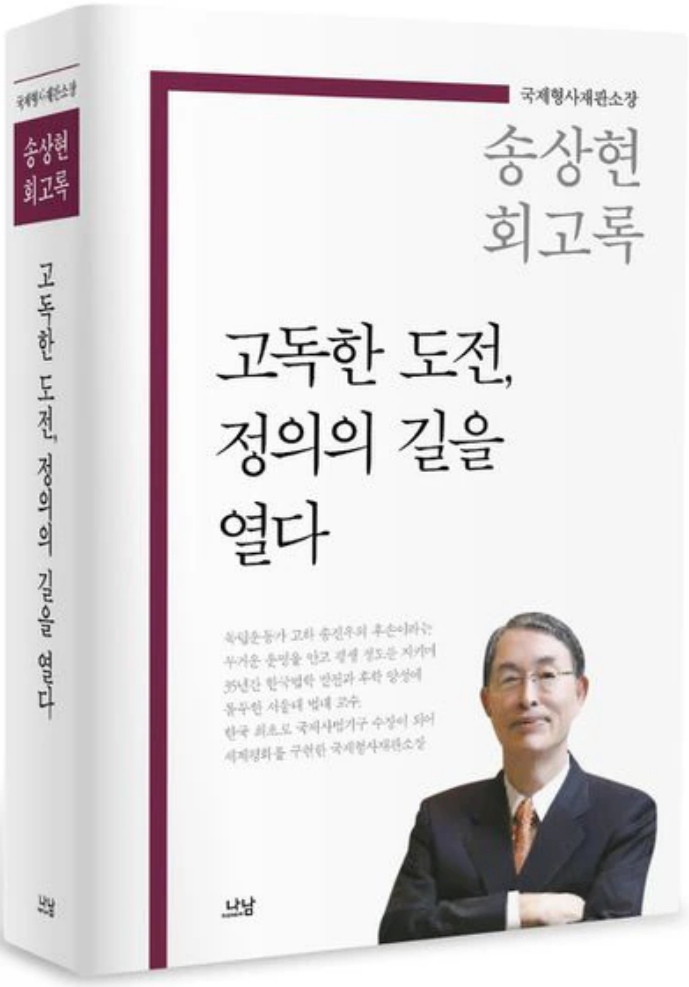
◇"명경지수 같은 마음...리더들 사명감 가져야"

- '100세 시대'인데 어떤 계획이 있나?

“명경지수(明鏡止水·잡념과 헛된 욕심 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 같은 마음으로 살 뿐이다. 일체 욕심을 버렸다. 다음 세대에 내가 갖고 있고 성취한 걸 전해주는데 힘쓸 것이다.”

- 마지막으로 국가 원로(元老)로서 국민과 청년에 조언한다면?

“세계사의 중심 흐름은 ‘개인의 자유 확장’인데, 국내외에서 자유가 요즘 크게 위협받고 있다. 북한 김정은 집단은 인류 역사상 있어본 적 없는 개인 숭배 집단이다. 국민과 청년들이 북한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않길 바란다. 규칙에 기반한 자유주의국제질서를 깨려는 중국·러시아 등 전체주의 독재국가들의 도전에 맞서 리더들이 좀더 사명감, 책임감있게 대응했으면 한다.”



송상현 교수가 2020년 12월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 본문 분량만 1043쪽에 달한다./나남

송의달의 모닝라이브 뉴스레터 구독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80902